

K-저널 커먼즈 플랫폼의 구축방안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수상 교수

sslee@pusan.ac.kr



목 차

- I. K-저널
- II. 커먼즈 플랫폼
- III. K-저널 커먼즈 플랫폼의 구상
- IV. 서비스 방안

1. 학술지

■ 학술지(Academic Journal)

- 학술잡지, 저널
- 저널(Journal)은 "daily"를 의미하는 프랑스 고어인 "journal"에서 유래 → 매일의 활동을 기록한 기록물을 일컫는 말
- 출판 영역에서는 저널을 학술저널, 매거진, 신문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정기간행물(periodicals) 또는 연속간행물(series)의 의미로 사용 → 학술저널이 바로 학술지
- 학술적 목적으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이며, 학술적 지식의 미디어 역할 수행
- 학술지의 발행 주체
 - ✓ 주로 학회
 - ✓ 외국의 경우 상업적 학술출판사 우세
 - ✓ 학회가 상업 출판사에 발행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음

■ 학술지의 유형

- 과학 학술지와 의학 학술지
- 구독 학술지와 OA학술지
- 기타: 메가학술지, 데이터학술지 등



■ 학회

- Learned society, Scholarly society, 또는 Academic association
- 학술적 이론과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학술 전문가들의 단체이며, 회원으로 구성되는 비영리 조직
- 최초의 학회: 1323년, 프랑스의 툴루즈(Toulouse)에서 조직된 시학 아카데미(poetic academy)인 <Consistori del Gay Saber>
- 유명한 학회
 - ✓ 1660년, 영국의 왕립학회(Royal Society): 최초의 국가 주도의 과학연구기관
 - ✓ 1743년,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주도하여 조직한 <APS(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미국의 최초 학회

■ 상업적 학술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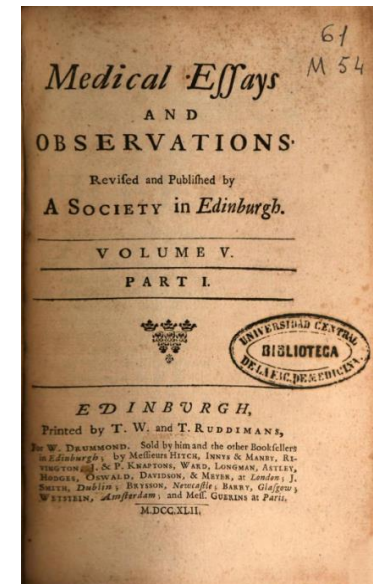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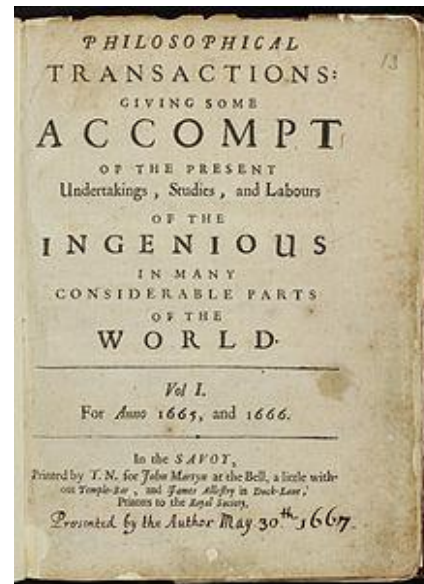
- 전 세계 2,000개 이상이 존재
- 유명한 학술출판사: 엘스비어(Elsevier), 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 와일리(Wiley), T&F(Taylor & Francis), 세이지(Sage) 등
 - ✓ 각각 1,000종 이상의 학술지들을 보유, 전체 10,000종 이상의 학술지들 출판
 - ✓ 전체 학술논문들의 50% 이상 차지

■ 학술지 출판사로서 엘스비어 (*참조: <2019년 연감>)

- 발행 학술지: 학술지는 약 2,500종
 - ✓연간 총 496,000건의 학술지 논문을 출판
- 편집위원들: 약 22,000명
- 2019년 창간: 6개의 구독학술지, 100개의 완전 OA학술지
- 참조: 엘스비어 임프린트(Imprints): 현재 14개 이상의 출판사들
 - ✓이전에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출판사들을 엘스비어가 인수한 Pergamon Press, Academic Press, Cell Press, Mosby 등
 - ✓독자적인 출판은 하지만, 법적인 책임(소유권 유지)은 엘스비어가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됨

■ 최초의 학술지

- 1965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간한 <Journal des sçavans>
- 1965년 3월, 영국의 왕립학회(Royal Society)의 <Philosophical Transactions>
 - ✓ 약칭은 Phil Trans이며, 1776년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로 명칭 변경
- 완전한 동료심사(fully peer-reviewed) 학술지는 1733년 Philosophical Society of Edinburgh(당시의 명칭: A Society in Edinburgh)가 발행한 <Medical Essays and Observations>



■ 한국의 학회와 학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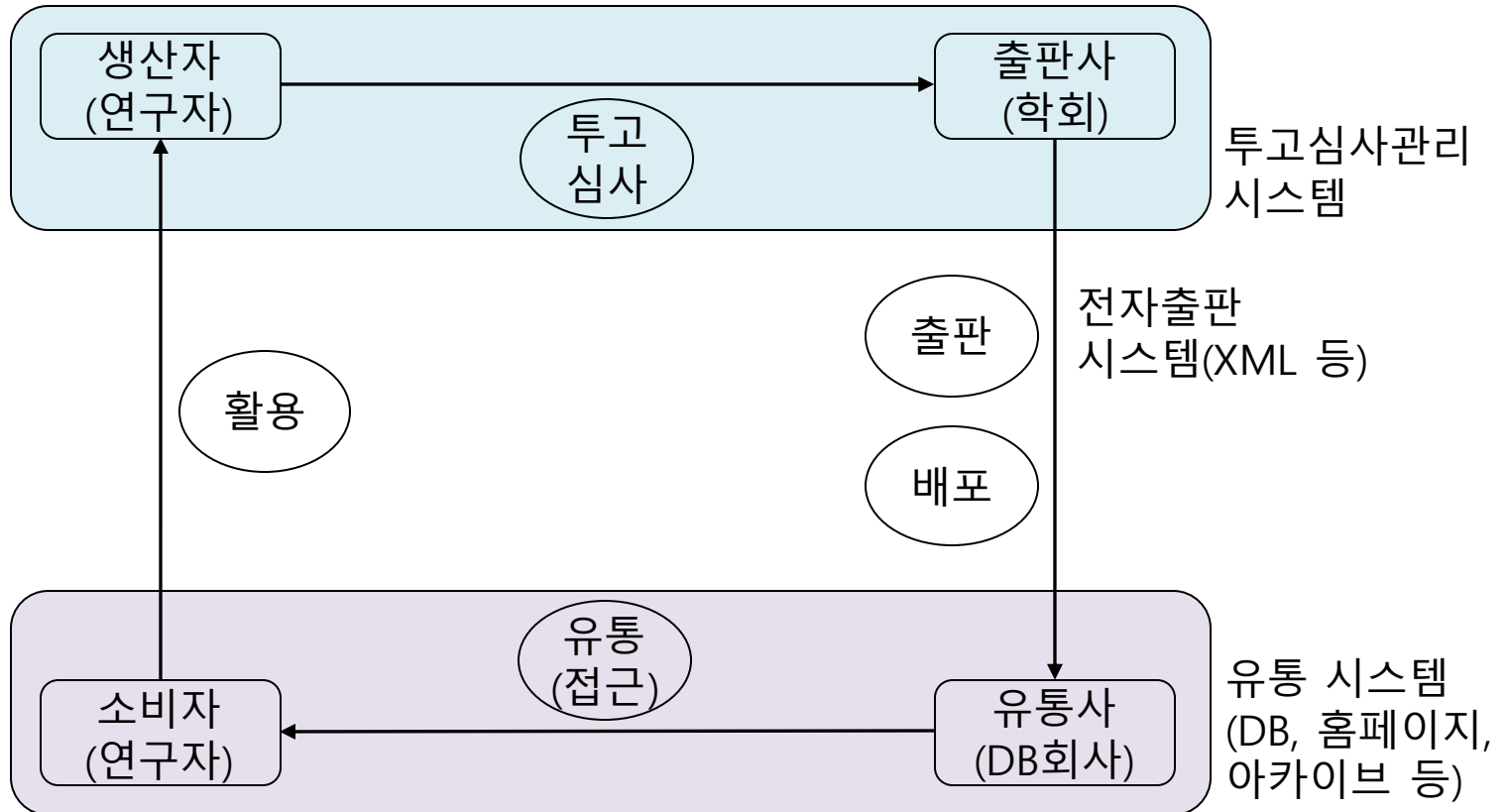
- <한글학회>
 - ✓ 1908년, <국어연구학회>로 탄생
 - ✓ 1921년, <국어연구학회>를 모체로 하는 <조선어연구회>가 창립
 - ✓ 1927년, 동인지 형식의 <한글> 발행
 - ✓ 1931년, <조선어연구회>를 <조선어학회>로 개칭
 - ✓ 1949년, <조선어학회>를 <한글학회>로 개칭
- 일제 강점기 시대의 주요 학회
 - ✓ <조선사학회>(1923년)
 - ✓ <청구학회(靑丘學會)>(1930년)
 - ✓ <진단학회>(1934년) 등
- 해방 이후의 주요 학회
 - ✓ 1945년: 조선신경정신과학회 등
 - ✓ 1946년: 한국심리학회, 대한수학회, 대한화학회, 대한약학회, 대한물리학회 등
 - ✓ 1950년대: 한국경제학회(1952년), 한국정치학회(1953년) 등

2. 국내 학술지

■ 현황(2022.05.16. 한국연구재단 기준)

구분	총계	등재 학술지 종수				계
		인문사회분야		과학기술분야		
		등재	등재후보	등재	등재후보	
학회 발행 학술지	3,150	1,229	126	692	69	2,116
대학부설연구소 발행 학술지	2,584	384	53	19	8	464
기타(일반)기관 발행 학술지	181	83	12	9	-	104
합계	5,915	1,696	191	720	77	2,684
		1,887		797		

■ 국내 학술지의 출판과 유통



■ 국내 학술지의 주요 유통 사례

구분	유형		내용
공적 유통	출판사(학회) 유통		학술지 홈페이지
	공공기관 유통	한국연구재단(NRF)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ScienceON KoreaScience
	연구기관 유통	기관 리포지토리(IR)	dCollection, S-Space(서울대) 등
		연구업적관리시스템(RIMS)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등 구축
상업적 유통	메타데이터 유통	검색 포털	네이버 학술정보 Google Scholar 등
	원문 유통	국내 학술DB	DBPIA, KISS, 스콜라, earticle
기타 유통	해외 유통	해외 색인DB	WoS, Scopus 등
	OA유통	해외 OA저널	DOAJ 등
		국내 OA저널	KOAJ, AccessON 등
		기타	OA Discovery

■ 등재 학술지의 국내외 학술DB 유통 현황

▪ 기준: 2021년 10월 말, 2,714종

국내DB 등재	학술지수	WoS 등재	Scopus 등재	OA DB 등재		
				DOAJ	AccessON	earticle-OA
Dbpia	728	17	60	14	4	5
KISS	812	20	51	24	3	4
스콜라	484	12	29	12	2	4
earticle	246	1	6	2	1	-
비등재	533	99	174	60	13	65
합계	2,803*	149**	320	112	23	78

* 2개 국내 DB에 중복 등재된 학술지 86종과 4개 DB 모두 등재된 학술지 1개 포함

** WoS 등재 학술지(148종)에서 <대한치과교정학회지>가 Dbpia, 스콜라에 중복 등재

※ WoS(148종)와 Scopus(320종)에서 140종의 학술지는 중복으로 등재되어 있음

3. K-저널

■ K-저널 개요

- 국내학술지의 세계화, 대중화를 지향하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 참조: K-콘텐츠(K-팝, K-드라마, K-영화 등), 세계 속의 한류 콘텐츠

■ K-저널의 요건

- 세계화: 전세계인에게 원문 제공 → K-저널 플랫폼
- 대중화: 원문접근 비용부담 없음 → OA저널 플랫폼
- 실현: K-OA저널 플랫폼

1. 플랫폼

■ 플랫폼(Platform)

- 지하철 승강장, 기차역, 공항터미널 등과 같이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
-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을 위해 다양한 시설(편의점, 식당, 약국 등)이 들어서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형성
 - ✓기본기능과 편의기능을 서비스로 공급
 - ✓주요 구성요소: 제품, 공급자, 이용자, 관리자, 지원자(결제, 배송 등) 등
 - ✓수익모델: 중개수수료, 구독료, 광고료, 라이선싱, 아이템 판매 등

■ 플랫폼의 유형

- 온라인 플랫폼(디지털 플랫폼) vs 오프라인 플랫폼
- 민간 플랫폼 vs 공공 플랫폼

■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 소프트웨어 플랫폼
- 하드웨어 플랫폼
- 서비스 플랫폼
 - ✓ 다른 서비스들이 인터넷을 통해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기반의 기술 환경. 즉, 인프라 구성과 유지보수의 복잡함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실행, 관리에 필요한 요소들을 웹에서 쉽게 빌려 쓸 수 있는 환경 → 웹서비스(web services)라고 함
 - ✓ 초기의 서비스 플랫폼: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호스팅이나 인터넷 상에서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웹 하드 서비스 등 → ASP 방식
 - ✓ 현재의 서비스 플랫폼: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형태로 운영 → SaaS 방식

2. 커먼즈

■ 공유: Sharing vs Commons

▪ Sharing의 사전적 의미

- ✓국어사전: 하나의 물건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 공동소유
- ✓영어사전: 자원이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 → 공동사용
- ✓'공동'은 공동체(community)를 의미하며, 지역적 단위(마을, 도시, 국가 등)와 결사적 단위(조직, 단체 등) 등으로 구분되는 사회적 집단(가족공동체, 학교공동체, 마을공동체, 특정 전문 영역의 학술공동체 등)
- ✓반대말: '사유(私有)',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사용 → 관련 재화는 사유재(私有材)

▪ Commons의 사전적 의미

- ✓영어사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화 또는 자원을 의미
- ✓우리말에서 공유재(共有材)
 - ❖토지, 자원, 자산 등으로 구분하여 공유지, 공유자원, 공유자산, 공동자산, 사회간접자본 등으로 표현
 - ❖소유권자(인류 그 자체, 국가나 정부, 공적인 집단, 특정한 소수의 공동체 등)가 있으며, 관련된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자원들

■ 커먼즈(Commons)의 개념

- 공유재, 공유재화(common goods), 공유자원(common resources), 공유공간
- [참조] 재화의 주요 구분
 - ✓실물재화: 공간, 사물 등과 같이 실체가 있는 재화
 - ✓무체재화: 지식, 서비스, 저작권 등과 같은 실체가 없는 재화
 - ✓디지털재화: 디지털 형태의 재화
- 공유재의 2가지 특성
 - ✓첫째, 재화의 소유/사용에 경합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유재와 공공재(公共材)로 구분. 경합성은 대체로 양이나 수가 한정된 실물재화에 적용됨 → 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공유재, 경합성이 없는 재화는 공공재라고 구분
 - ✓둘째, 기본적으로 공유재는 사용의 제한이 없는 비배제성 자원 → 누구든지 사용하는데 있어 비용지불과 같은 제약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임
- [참조] 사유재(私有材) 또는 상업재
 - ✓소유한 개인이나 집단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사용이 배제되며, 사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사용권 허락을 받은 사람은 사용 가능 → 사용권은 비용지불과 같은 대가를 통해 취득 → 비용지불이라는 시장논리가 적용될 경우, 경제(economy), 사유재의 공유경제 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 재화/자원의 유형

배제성 \ 경합성	높음	낮음
높음	사유재	비밀재
낮음	공유재	공공재

※ 실물재화에 잘 적용되는 구분이며, 디지털재화/무체재화에서 경합성은 모호함

- 참조: 지식의 공유 - 폐쇄성을 넘어 '자원으로서의 지식'을 나누다 (엠펜이: 엘리너 오스트롬, 샬럿 헤스 / 옮긴이: 김민주, 송희령 / 타임북스(2010) / 원제 : Understanding Knowledge as a Commons: From Theory to Practice, 2007)

■ [정리] 공공재 vs 공유재

■ 공공재(公共材)

- ✓ '공공(public)'은 개인과 대비되는 공동체를 의미 → 공적인 공동체
- ✓ 공공재는 공공의 사용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비용(세금)으로 만든 재화이며, 납세자인 국민 모두가 소유권을 가지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
- ✓ 물론 수도, 전기, 고속도로 등과 같은 일부의 공공재들은 국가가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에 따른 비용지불 요구 가능
- ✓ 공공재는 하나의 정부나 공공기관의 단위를 넘어, 인류를 단위로 확대 가능 → 물, 공기, 문화재, 과학지식 등은 인류의 자산이며, 인류의 공공재

■ 공유재(共共材)

- ✓ 관련된 공동체는 마을 단위, 학교 단위, 특정 전문가 단위 등과 같이 집단의 경계가 명확하고, 경제적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조직체 → 비영리 공동체
 - ✓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유재의 유지에 대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공동체 내의 사람들에 한하여 공유재는 제약없이 사용 가능
- 공적인 공동체와 비영리의 공동체의 구분이 어렵기에, 공유재와 공공재의 구분도 쉽지 않음 → 공공재는 공유재에 포함이 가능하지만, 공유재를 공공재라 하는 것은 어색할 수 있다는 정도

■ 주요 논의

- 하딘(Garrett Hardin)의 **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 ✓ 인간의 사적인 욕심에 의해 공유제도는 결국 파괴로 귀결되는 상태 → 공유재 딜레마
 - ✓ 해결책: 공유재는 인간의 이상일 뿐, 사유재나 공공재(국유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
- 헬러(Michael Heller)의 **반(反)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anticommons)**
 - ✓ 공유재를 사유재로 전환하면, 사유재에 따른 또 다른 비극적인 문제가 발생 가능 → 사유재의 비극: 불평등, 특허와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 부동산 알박기 등과 같이 공유재산을 사유화에 의해 사회 전체의 생산 증가를 저해
 - ✓ 공공재로 전환하면, 무임승차, 무책임 등과 같은 비극적인 문제들 발생 가능
-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공유재 딜레마의 해결 방안: 공동체 자치의 공유화**
 - ✓ 공유재를 사유재나 공공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율적 관리에 의해 잘 관리될 수 있다는 것
 - ✓ 공유재를 국가나 시장에 맡기지 않고, 특정한 공동체에 속하는 공유자들의 자치적 해결이라는 방안

■ 디지털 재화의 구분

구분	특성	경합성(저작권)의 관점	배제성의 관점
디지털 사유재	디지털 환경에서 접근비용 이라는 제약이 적용되는 배 제성의 특성을 가진 재화	저작권 존재	저작권에 의한 접근
디지털 공공재	공적인 공동체(정부, 공공 기관)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재화	저작권 없음	공공접근 (public access)
디지털 공유재	비영리적인 공동체에서 소 유권을 가지는 재화	저작권 존재	개방접근 (open access)

3. 커먼즈 라이선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

- 2001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대표이사이면서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인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에 의해 설립
- 설립취지는 저작권에 대한 제약이 심해지는 상황에 반하여 합리적이고 유연한 저작권 생성과 모든 저작물에 대한 철저한 통제(All Right Reserved: Full Copy Rights)와 모든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No Right Reserved: Public Domain)의 절충안인 '부분 권한만 인정(Some Rights Reserved)'선언을 통해 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자 함
- 창작자가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표준 약관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만들어 배포
- 현재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5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를 설립
(<http://ccl.cckorea.org/cckorea/>)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 Creative Commons License(CCL), 대표적인 커먼즈 라이선스
- 몇 가지 구성요소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저작자는 그 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도록 하는 시스템
- 2002년 12월 CCL의 첫 번째 버전이 개발되었으며, 실제 라이선스의 종류는 4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라이선스가 형성됨
- 논리적으로 가능한 라이선스의 종류는 총 11개가 되며,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의 종류는 총 6가지임
- [참조] 지식 커먼즈와 저작권법, 그리고 CCL (윤종수, 지식을 공유하라 / 지식공유연대 / 빨간소금(2022))

■ CCL의 4가지 요소

기호	요소	설명
	Attribution (저작자표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Noncommercial (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정한다.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에 이르지 못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CCL의 6 종류

- CC BY(저작자표시): 저작자에 대한 표기조건만 제시한 라이선스
- CC BY-NC(저작자표시-비영리): 영리목적은 제외한 저작자표시 라이선스
- CC BY-ND(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물에 대한 변경작업을 제외한 라이선스
- CC BY-SA(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변경하더라도 기 부여된 라이선스를 수정없이 유지하는 조건의 저작자표시 라이선스
- CC BY-NC-SA(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영리목적으로 제외한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
- CC BY-NC-ND(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변경작업 및 영리목적은 제외한 저작자표시 라이선스

■ CCL의 사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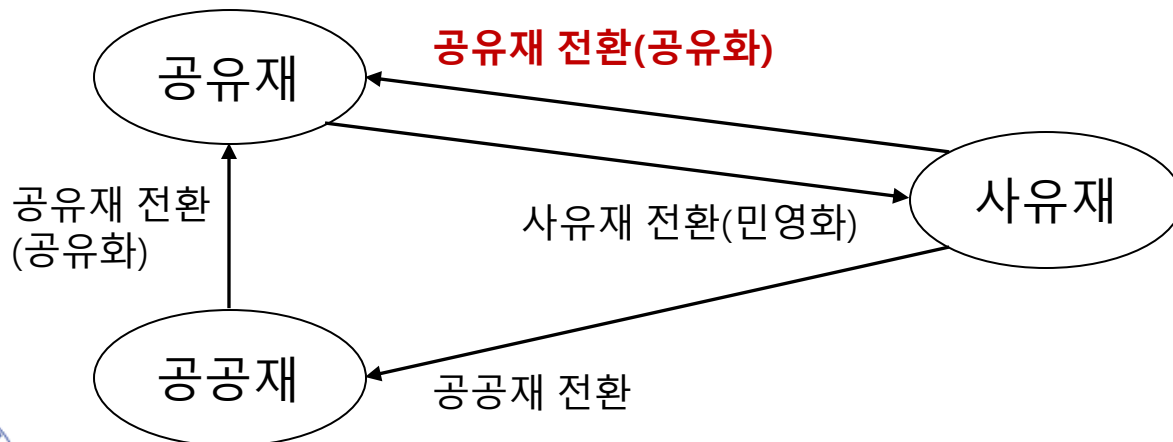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커먼즈 플랫폼의 구상

■ 커먼즈의 유형

- 사유재의 공유재 전환(공유화)
 - ✓ 당초 공유재의 특성을 가진 재화였는데 사유재로 거래되고 있는 것과 현재 사유재이지만 공유재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재화에 해당
 - ✓ 대표적인 사례: 대학도서관의 주요 정보자원인 학술지 재화의 공유화 → 학술지의 공유화 → 학술지 커먼즈 플랫폼이 필요
- [참조] 사유재의 공유거래 전환 사례: 공유경제(sharing economy)
 - ✓ 공유거래를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



■ 학술지의 공유화

- 학술지는 학술지 공동체의 공동노력으로 만든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는 매체
- 어떤 계기로 민간기업들이 학술지 출판유통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학술지는 공유재로서의 특성을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사유재(상업재)로 전환되었음
- 외국 학술지와 국내 학술지의 사정은 많이 다름
 - ✓ 외국 학술지의 경우, 오래전부터 출판과 유통의 대부분을 출판사라는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사유재로 정착
 - ✓ 국내 학술지의 경우, 대부분의 학술지들은 현재 학회라는 공동체에서 출판(생산)하는 공유재이지만, 학회가 유통권을 민간 유통사로 넘기면서, 사유재로 유통하는 형태로 전환 → 공유재로 출판한 것을 사유재로 유통하는 재화
- 인쇄학술지가 디지털 형태의 전자학술지로 전환되고, 다량의 학술지들을 패키징한 DB로 유통되면서, 사유재로서의 폐해들이 심하게 나타남
- 학술지 반공유화의 비극
 - ✓ 높은 구독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도서관들의 경우, 연구자들에게 학술지 논문들에 대한 접근이 안되는 상황 발생
 - ✓ 학술지 지식접근의 불평등 문제이며, 학술지 공동체 내에서 지식격차가 발생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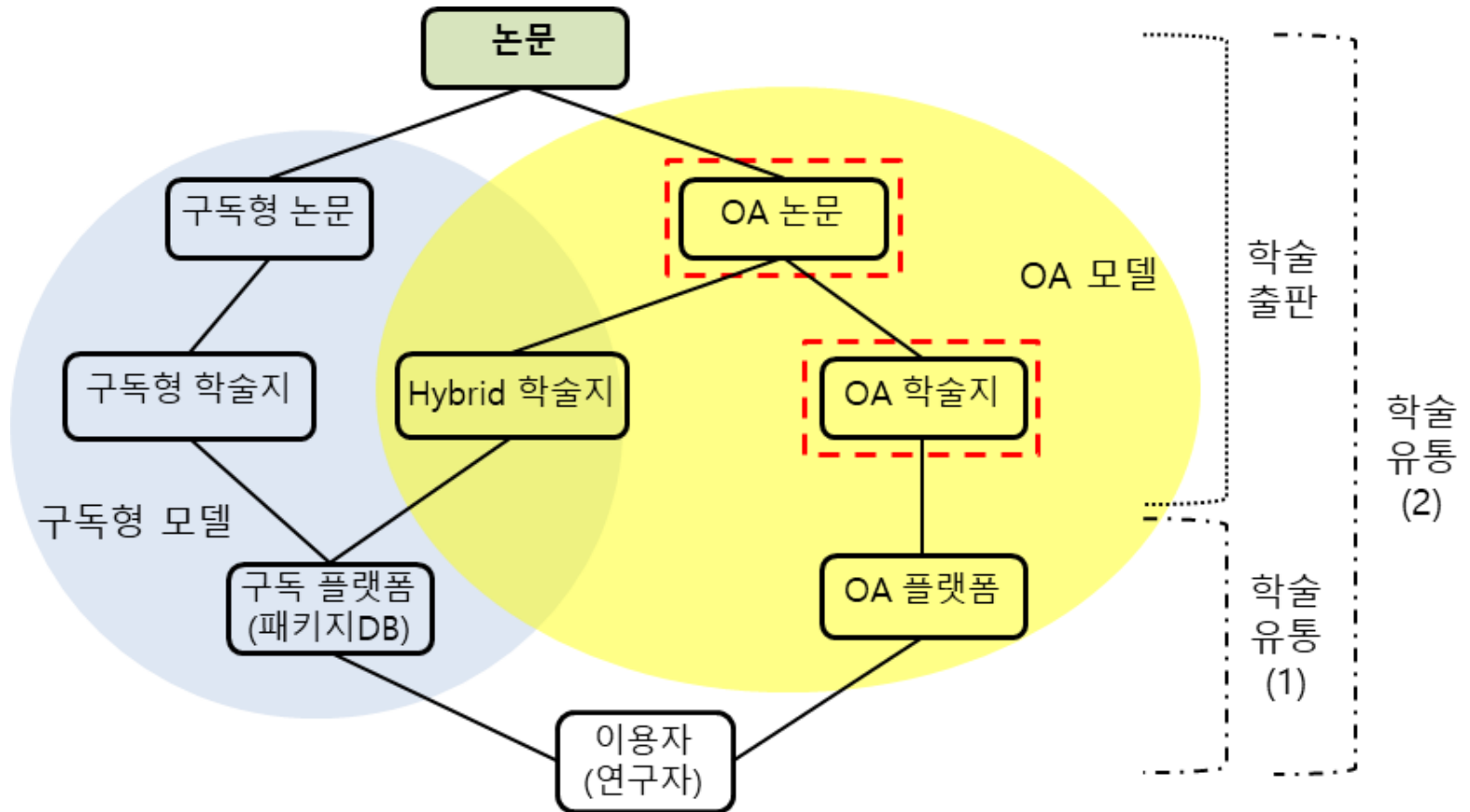
■ 학술지 커먼즈 플랫폼(Journal Commons Platform)

- 학술지 출판유통의 공유화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 ✓ 사유재인 학술지 매체를 공유재로 전환 → 새로운 학술지 출판유통 환경으로 전환
 - ✓ 민간기업에서만 독점하던 이익을 학술지 공동체 모두의 혜택으로 전환
- 오스트롬: 지식 커먼스(knowledge commons)라고 함
- OA학술지 전환을 운동적 차원에서 접근(OA운동)
 - ✓ 기존 학술지를 OA학술지로 전환(OA학술지 전환)
 - ✓ 새로운 OA학술지 창간(OA학술지 창간)
- 구성요소
 - ✓ 공유재 그 자체의 물건(재화): 학술지(논문)
 - ✓ 공유자들(commoners):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 연구자, 대학도서관, 학회, 출판사, 유통사 등
 - ✓ 공유자들로 구성되는 공동체의 경계: 학술출판유통계
 - ✓ 공동체의 자치적 규칙(규범)이나 운영에 해당되는 거버넌스 등

III. K-저널 커먼즈 플랫폼의 구상

1. 학술유통의 2가지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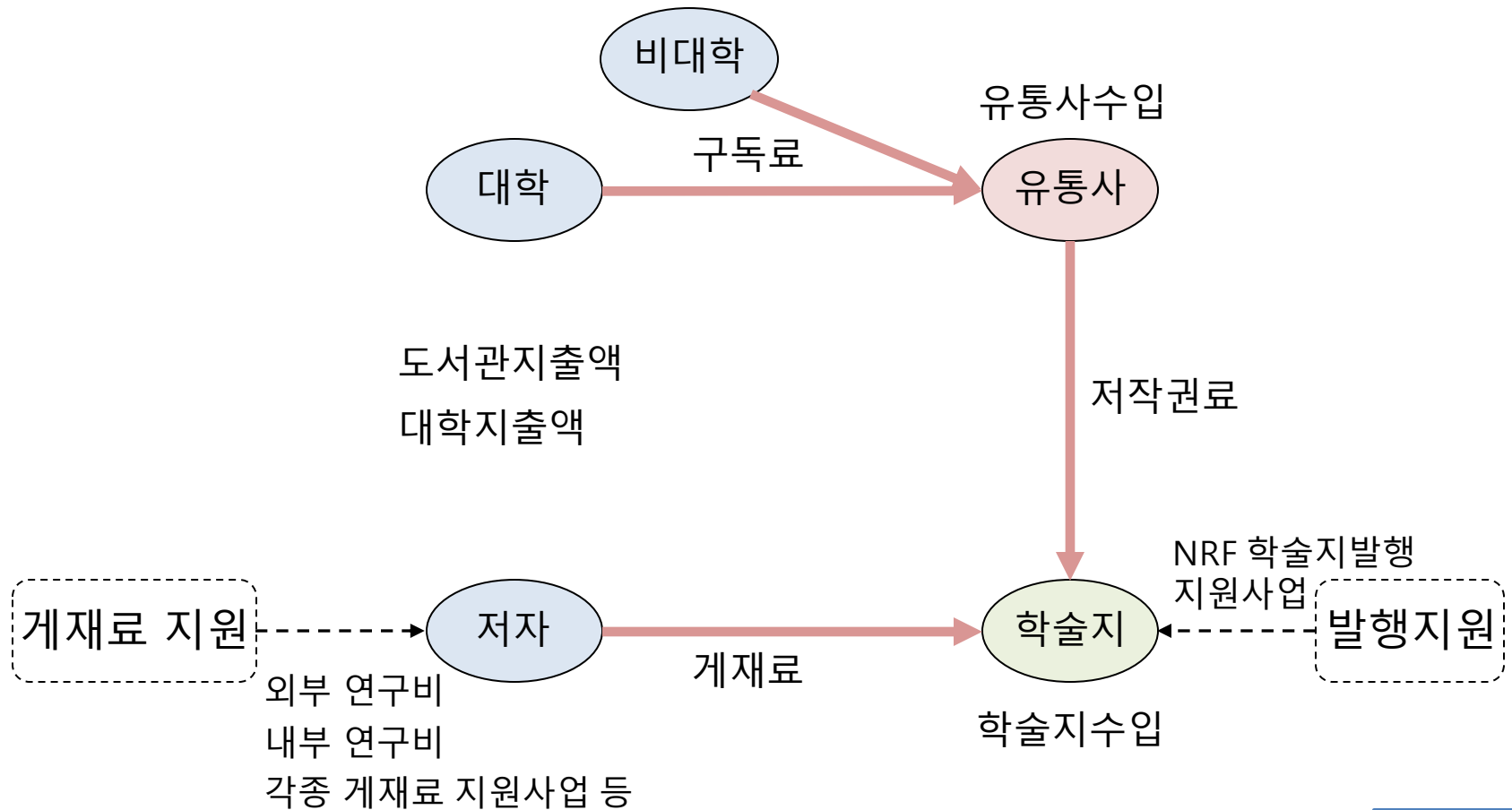
■ 2가지 모델의 구분



III. K-저널 커먼즈 플랫폼의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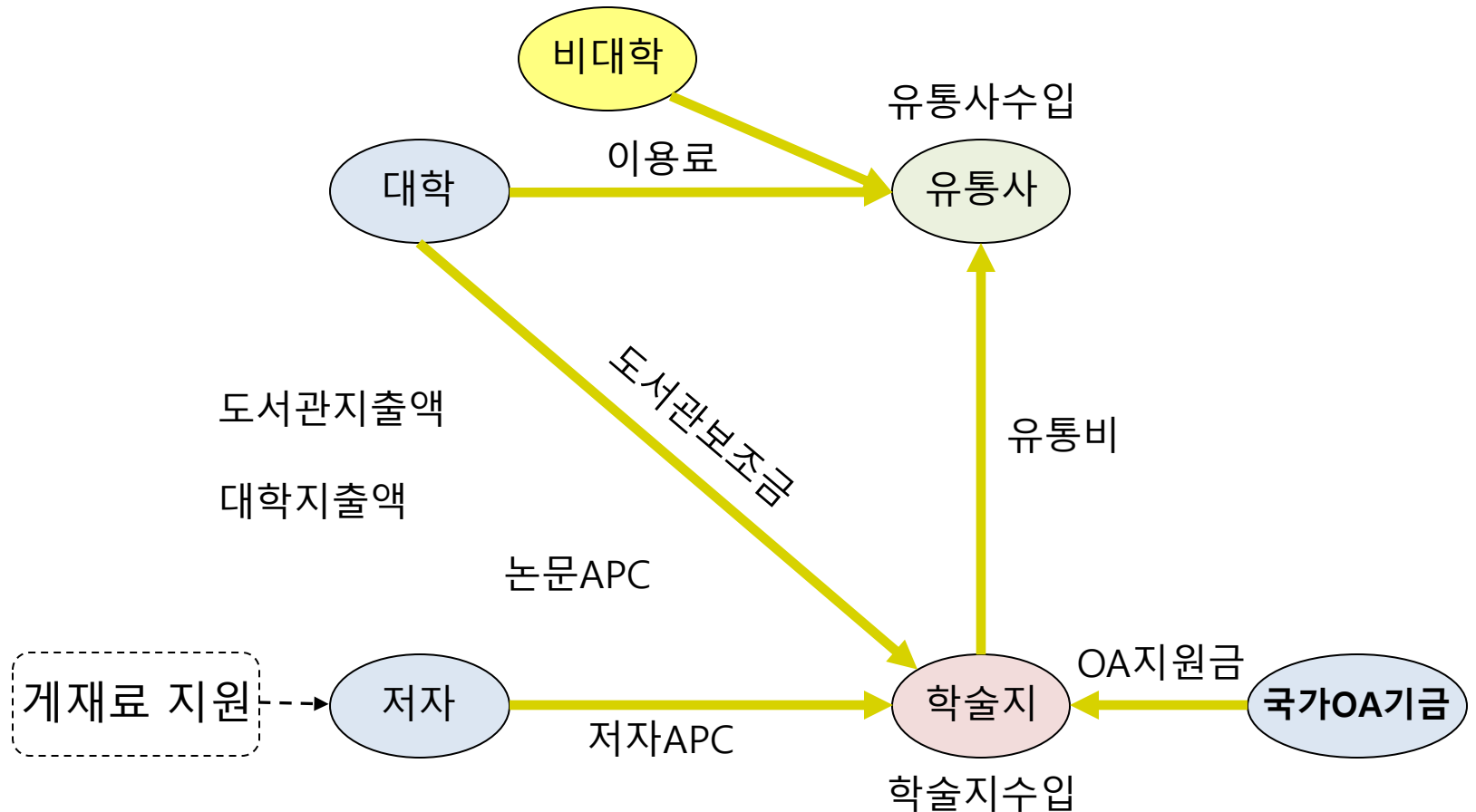
2. 비용흐름의 관점

■ 구독계약 모델



III. K-저널 커먼즈 플랫폼의 구상

■ OA출판계약 모델



3. 비용흐름 시뮬레이션

추 정) 구독료 지출 = 210억원 수준

-대학 구독료: 약 180억원

-비대학 구독료: 약 30억

(공공도서관, 건당 구독료 수입 등)

***시뮬레이션 원칙: 유통사의 기존 수익(수입-지출) 보장**

III. K-저널 커먼즈 플랫폼의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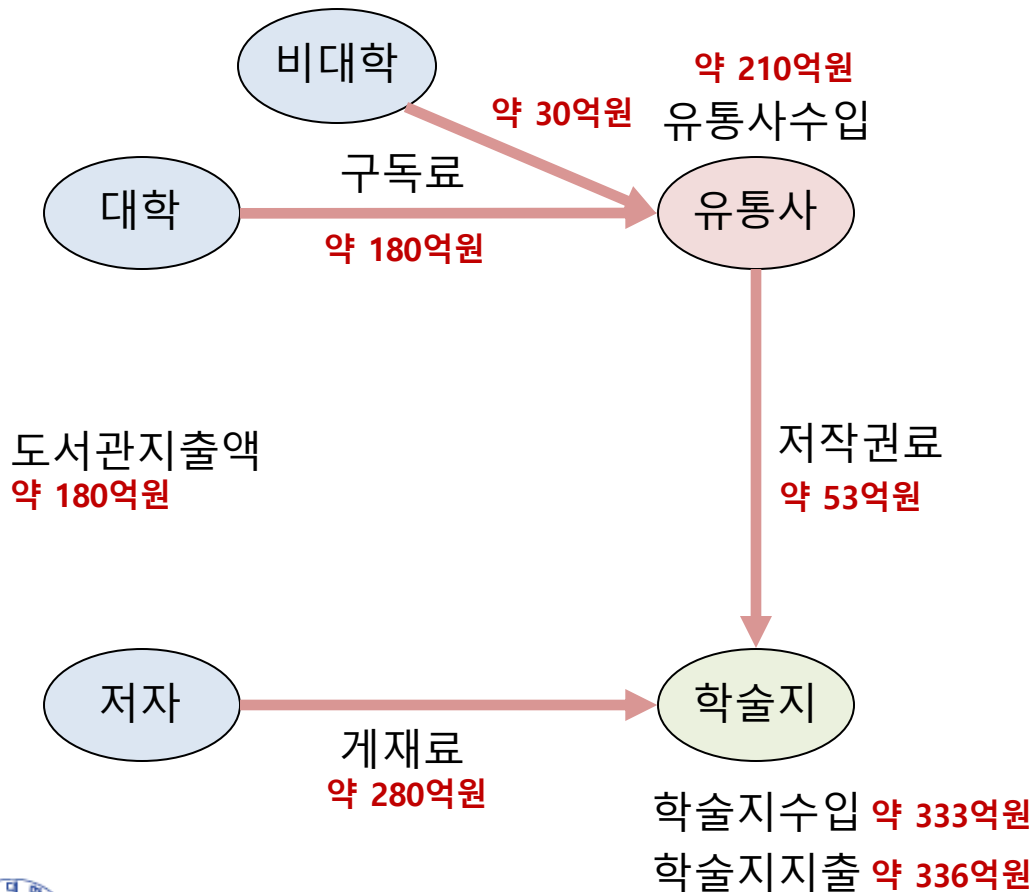
■ 비용흐름 비교

단위: 백만원

	변인	구독계약	OA전환계약	차액	비고
(대학) 구독료	A11	18,000			
(비대학) 구독료	A11	3,000			
게재료	A2	28,000			250천원(투교료, 심사료) 기준
저작권료	A3	5,250			전체 구독료의 25%
이용료	B1		3,120		학술지수*1,200원
저자APC	B21		28,000		논문수*250천원
도서관보조금	B22		11,200		논문수*100천원
학술지출판비	B3	33,600	22,400		구독: 논문수*300천원 OA: 논문수*200천원
OA유통플랫폼비	B4		13,440		논문수*120천원(*유통사이익 유지)
국가OA지원금	B5		3,000		비대학 구독료 수준 지원
학술지수입	C1	33,250	42,200	8,950	구독: A2+A3 / OA: B21+B21+B5
학술지지출	C2	33,600	35,840	2,240	구독: B3(구독)/ OA: B3(OA)
유통사수입	C3	21,000	16,560	-4,440	구독: A11+A12 / OA: B1+B4
유통사지출	C4	5,250	0	-5,250	구독: A3
저자지출	D1	28,000	28,000	0	구독: A2 / OA: B21
대학도서관지출	D2	18,000	14,320	-3,680	구독: A11 / OA: B1+B22

III. K-저널 커먼즈 플랫폼의 구상

■ 구독계약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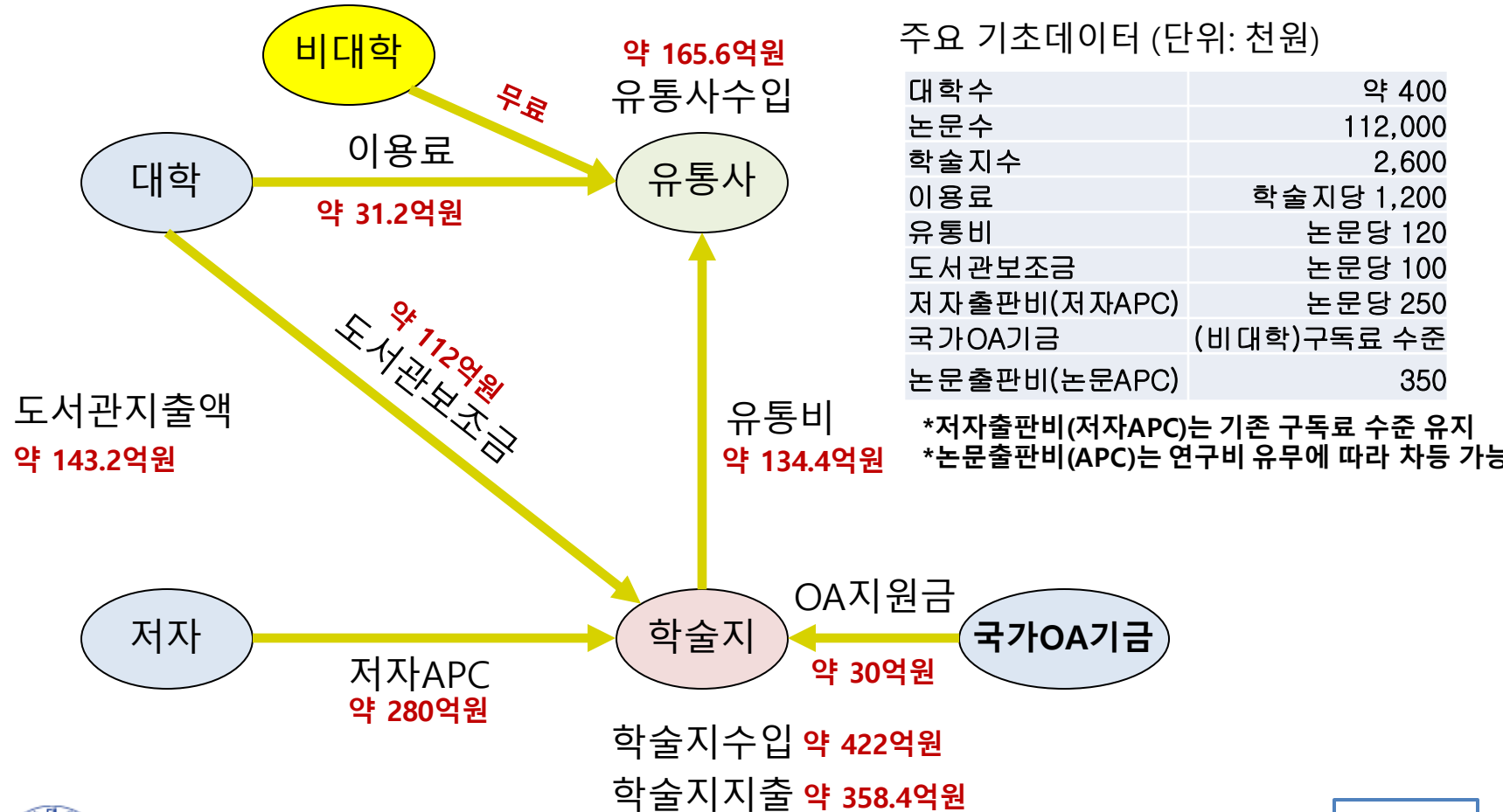


주요 기초데이터 (단위: 천원)

대학수	약 400
논문수	112,000
학술지수(등재 기준)	2,600
게재료	250
저작권료(추정)	구독료의 25%

III. K-저널 커먼즈 플랫폼의 구상

■ OA출판계약 모델



체크포인트 & Q&A

- 전환계약 대상 범위?
 - KCI 학술지 전체 5880종 (2021. 5월 기준)
 - KCI 등재/등재후보 학술지 전체 2,601종 (2021. 5월 기준)
- 점차적 전환계약 추진 시 비용흐름 구조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 전환계약 참여 학술지의 도서관-학술지(학회)-유통사 비용흐름 구조
 - 전환계약 미참여 학술지의 도서관-학술지(학회)-유통사 비용흐름 구조
 - 연구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문사회계열과 많은 과학기술계열의 학술지(학회)를 구분하여야 할지?
 - 참여 학술지(학회)의 인센티브? → 연구재단 학술지 지원사업 평가에 가중치 부여
- 대학(도서관) 컨소시엄의 구성 규모에 따른 대응책?
 - 참여 대학(도서관)만의 컨소시엄에서 비용흐름 구조의 발생 가능한 문제점?
 - 참여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센티브?
- 학술지(학회)의 학술대회 발표자료의 처리 방안?
 - 공공적 성격의 온라인 학술대회 플랫폼의 제공과 활용으로 발표자료 OA화